

시진핑 '중국몽' 내세워 3연임 개헌 추진

공산당, 연임 규제 삭제 제안 학계 '무가베' 비유 독재 비판 당 내부·시민사회 반응 주목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이 추진되자 중국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홍콩 반과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전날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현행 중국 헌법은 국가주석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3연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헌이 이뤄지면 10년 이상 장기집권이 가능

해진다. 중국 내 학자와 평론가들은 장기집권을 도모한 독재자의 말로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베이징의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짐바브웨의 독재자 무가베를 예로 들어 시 주석의 장기집권 추진을 비판했다. 장리판은 "이론적으로 그(시 주석)는 무가베보다 더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겠지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무가베는 37년간 독재를 이어왔지만, 지난해 11월 군부 쿠데타로 축출됐다. 중국 정치학자인 롱젠저(榮劍則)도 전날 소셜미디어에 장발 군벌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사진을 올리고 "8000만 명(중국 공산당원) 중에 대장부가 한 명도 없고,

14억 국민은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위안스카이는 1911년 신해혁명으로 탄생한 중화민국의 권력을 장악했던 군벌이다. 1915년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으나, 중국 전역의 극심한 반발로 1916년 3월 황제제도를 취소했으며 얼마 후 사망했다. 시사 평론가 린허리(林和立)는 "독재정권은 예외 없이 붕괴했는데, 이는 충분한 권력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너무 커서 아무도 독재자의 정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결과"라며 "대장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심 집권 추진은 1인 독재를 막기 위한 덩샤오핑의 민주집중제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극의 시작일 수 있다"며 "공

산당 내부와 중국 사회에서 이에 어떻게 반격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네티즌들도 온라인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중국인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혁명을 이뤄냈는데, 결국 황제 제도로 복귀한다"면서 "시진핑이 개헌에 성공한다면 그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시진핑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니, 그의 중국몽이 가증스럽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추진하는 중국 공산당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 추진을 위해서는 10년 임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전인대 앞서 공산당 전체회의 시진핑 '중심집권' 길 터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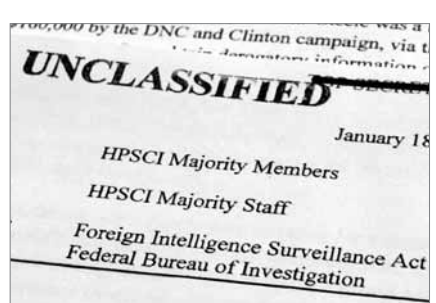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처럼 장기집권하겠다는 의지를 공개화한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 전회)가 26일 베이징(北京)에서 막을 올렸다. 19기 3중전회는, 작년 10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세번째로 열리는 전체회의로서, 이전에는 당 대회 개최 이듬해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최 이후 그 해 가을에 열렸으나, 이번에는 내달 5일 전인대 전에 개최돼 관심을 끈다. 이를 두고 시 주석이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 수정 등의 제반 조치를 할 목적으로, 19기 3중전회를 조기 소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 정가에선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구축된 집단지도체제로는 중국 인민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 주석 '1인 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부터 사흘간 열릴 19기 3중전회에서는 중국 헌법에 '시진핑 사상' 삽입과 '국가주석 2연임 제한 조항' 삭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며, 19차 당대회 이후 당·국가 지도자 인선과 신설될 국가감찰위원회 안건이 논의돼 다음달 초 열릴 전인대에 상정할 작업을 하게 된다. 앞서 19기 1중전회는 19차 당 대회 종료 직후 지난해 10월 개최돼 최고지도부 후계자를 지명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의 관례를 25년 만에 깨뜨렸다. 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 때는 집권 1기를 마친 후 열린 당대회에서 후계자를 정했으나 시 주석은 그런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 시 주석은 이때부터 장기집권 의지를 본격화한 셈이다. /연합뉴스



‘불의 고리’ 파푸아뉴기니 규모 7.5 지진 26일 오전 3시45분(현지시간)께 남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 남하일랜드주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이 일어난 곳은 파푸아뉴기니 포게라에서 남서쪽으로 89km 떨어진 곳으로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이다. 다행히 이번 지진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국가재난센터는 확인했다. 파푸아뉴기니 타부말 마을 인근에서 지진으로 산사태가 벌어진 모습.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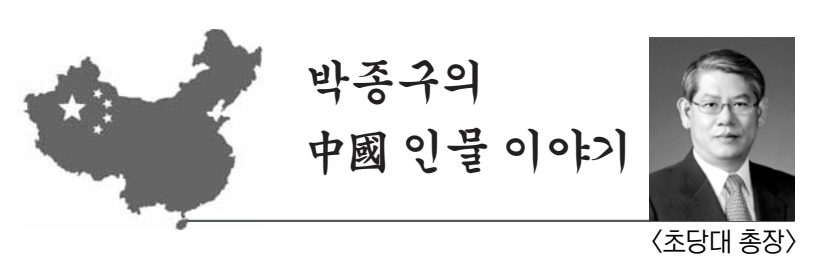
미국 하원, ‘누네스 메모’ 반박 ‘민주당 메모’ 공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캠프와 러시아 내통 의혹을 편향적으로 수사했다는 요지의 이달초 공화당의 보고서를 반박하는 민주당의 보고서가 우여곡절 끝에 공개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테리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작성한 이른바 ‘누네스 메모’를 반박하는 민주당 정보위원회의 보고서를 수정·편집을 거친 끝에 발표했다. ‘누네스 메모’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관심이 쏠려온 10쪽 분량의 이 ‘민주당 메모’는 공개까지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문건은 누네스 메모에 있는 일부



트럼프에 대한 FBI 수사편향을 비판한 ‘누네스 메모’ 주요 주장의 근거를 든다고, 해당 사안들의 전체 맥락을 추가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당국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전국위원회가 영국의 전직정보

요원 크리스토퍼 스틸의 정보보고에 돈을 탕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감청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공화당의 주장이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FBI와 법무부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트럼프 대선캠프의 외교정책 보좌관을 지낸 카터 페이지를 상대로 감청영장을 발부받을 때 스틸의 정보보고를 참고했다. 이른바 ‘트럼프 X파일’로 불리는 스틸의 정보보고에는 2013년 러시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유란파티’를 벌였고, 러시아 당국이 이를 녹화해 트럼프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당나라 명제상 요승

요승(姚崇, 650-721)은 당 현종 초의 명제상이다. 하남성 협석 출신으로 자는 원지다. 현종을 보좌해 개원성세(開元盛世)의 초석을 닦았다. 사천성 사창에 해당하는 승주 도독을 지낸 요의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문무에 출중했다. 관직에 나가 북주 사창참군, 하관낭중을 역임했다. 696년 거란의 이진충이 하북성을 유린했는데 일처리를 분명히 해 하관시랑이 되었다. 이후 동봉각난대삼품, 봉각시랑이 되어 중신 반열에 올랐다. 축전황제 말년 총애를 받던 장창중, 장역지 형제와 사이가 나빠 어려움을 겪었다. 705년 재상 장간지가 주도한 중종 복위 쿠데타에 참여했고 임치왕 이용기의 현종 즉위에도 기여했다. 예종 재

당 현종 왕권 강화 일등공신

위 중에는 정치를 전횡한 태평공주를 동도인 낙양으로 내보내도록 주정했다. 그녀의 미움을 사 하남성 신주사로 파견되었다. 712년 즉위한 현종은 왕권 강화에 전력을 기울였다. 노련한 요승을 재상으로 발탁해 국경개혁의 중임을 맡겼다. 그는 세 번 재상을 하였고 모두 병부상서를 겸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어진 정치를 실시하고 엄한 형벌을 금지할 것. 권세가 있고 총애를 받은 사람은 억누르고 직위와 포상 내리는 일을 아끼며 간하여 다루는 것을 받아들이고 공물을 바치는 것은 물리치고 신하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을 것. 더 이상 사찰과 도교 사원을 짓지 말 것 등을 건의하니 황제가 모두 받아들였다. 그가 하급관리 인사 문제를 황제에게 주청하자 황제는 궁전 지방만을 올려다 보고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두려운 마음으로 자리를 떠났는데 환관인 고령사가 황제에게 간하였다. “황제께서는 모든 정사를 관장하시고 재상이 일을 아뢰면 면전에서 가부를 내리셔야 하는데 어찌 한번도 살피지 않으십니까?” 황제가 말하기를 “짐은 재상에게 모든 정사를 맡겼다. 큰일은 응당 상주하여 함께 논의해야 하지만 하찮은 인사문제를 가지고 짐을 번거롭게 하는구나” 이후 조정 대사는 전적으로 재상에게 위임되었다. 그는 사안의 경중과 특히 고종과 축전황제 시절 무분별하게 늘어난 절과 도교사원의 정비에 나섰다. 황실과 귀족들의 후원으로 도를 넘은 종교사원을 규제하려는 의도였다. 농촌을 공평하게 만든 때우기제를 일소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원 초기 국정이 빠른 속도로 안정되었다. 그가 아들의 장래를 치르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차석 재상인 노회신이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해 조정엔 현안이 산적했다. 자기주장이 없이 시류에 영합한 노회신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반식재상(伴食宰相)이라고 흉보았다. 정부에 복귀해 순식간에 현안을 처리했다. 그는 측근인 제현에게 물기를 “나와 춘추시대 명제상인 관중과 비교하면 어떠한 인사 문제를 황제에게 주청하자 황제는 궁전 지방만을 올려다 보고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두려운 마음으로 자리를 떠났는데 환관인 고령사가 황제에게 간하였다. “황제께서는 모든 정사를 관장하시고 재상이 일을 아뢰면 면전에서 가부를 내리셔야 하는데 어찌 한번도 살피지 않으십니까?” 황제가 말하기를 “짐은 재상에게 모든 정사를 맡겼다. 큰일은 응당 상주하여 함께 논의해야 하지만 하찮은 인사문제를 가지고 짐을 번거롭게 하는구나” 이후 조정 대사는 전적으로 재상에게 위임되었다. 그는 사안의 경중과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경매물건 (추천)

*담양군 담양읍 (무인텔)
감정:30억2천4백
최저:16억9천

*남구 주월동 (근린주택)
감정:4억5천3백
최저:4억5천3백

*남구 노대동 (상가건물)
감정:4억8천7백
최저:3억4천1백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2월초 개강)

1) 이론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

2) 실전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

3) 경매 평생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인데,
개별까지 원스톱 진행

경매물건 추천

① 광산구 용동 (공장)
감정가 9억6천7백 → 최저가6억7천 7백
토지:500평 건물:445평

② 서구 풍암동 중흥아파트 (24평)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2백

③ 서구 마름동 (주택)
감정가 1억3천 → 최저가 9천백

[사무직 (여)경력 구함,]
[경매 부동산 관심사 환영]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추)대신경매

1) 남구 노대동(상가건물) 어린이집
감정:4억8천7백 → 최저:3억4천1백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효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1억4천4백 → 최저:1억4천4백

3) 담양군 담양읍 (무인텔)
감정 30억2천4백→최저 16억9천

4) 무안군 운남면 (노유자시설)
감정 9억 3천 → 최저4억 2천

5) 광산구 수완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

6) 남구 주월동 (근린주택)
감정 4억5천 3백 → 최저 4억5천3백

7) 광산구 장덕동 (근린주택)
감정13억1천9백 → 최저13억1천6백

8) 화순군 남면 사평리 (주유소)
감정가 5억4천7백 → 최저가 3억6백

9) 화순군 도곡면 천암 (숙박시설)
감정 38억7천 → 최저 13억8천

10)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근린시설)
감정 7억2천2백 → 최저 3억2천3백

11) 나주시 성북동 (근린주택)
토지:439평
감정:32억6천 → 최저:14억6천

A.P.T·주택·공장·토지 (기타)

① 서구 치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1평)
감정 2억2천4백 → 최저 1억5천6백

②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24평)
감정 1억5천3백 → 최저1억 7백

③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아파트 (54평)
감정 4억5천8백 → 최저 4억 5천8백

④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⑤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밸리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 2천6백

⑥ 서구 벽진동 (토지) 222평
감정 8천6백 → 최저 8천6백

⑦ 광산구 오산동 (공장)
감정 18억3천6백 → 최저 12억8천5백

⑧ 남구 양림동 (주택)
감정 2억6천7백 → 최저1억 8천7백

⑨ 목포시 산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

⑩ 광산구 박호동 (토지)
감정 1억9천 → 최저5천5백

010-6670-9800 062)382-5500